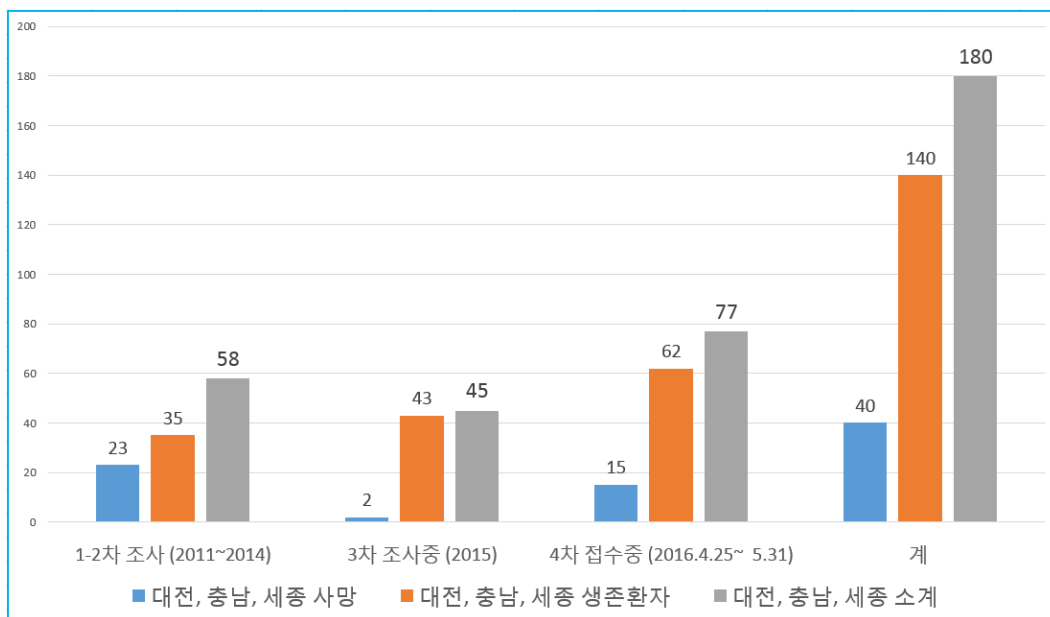


**대전 · 충남 ·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 명, 생존환자 140 명**

2016 년 5 월 31 일까지의 조사 및 접수현황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www.eco-health.org

1 가슴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구분	계	사망자		생존환자	담당 기관
		사망 (사망률)	판정당시 사망 판정후 추가사망		
1차조사 ('13.7~'14.4)	361	106 (29.4%)	104 2	2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차조사 ('14.7~'15.4)	169	40 (23.7%)	36 4	12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2차	530	146 (27.5%)	140 6	384	보건복지부+환경부
3차 조사중 ('15.12.31 마감)	752	80 (10.6%)		67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차접수 ('16.1.1~4.25)	566	41 (7.2%)		525	민간신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4차 접수중 ('16.4.25~5.31)	1,054	236 (22.4%)		81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2,336	462 (19.8%)		1,874	4차 민간접수는 정부접수와 중복 확인중으로 일단 제외

<표,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 년 들어 가슴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 월 25 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¹에 의하면, 5 월 31 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 차 피해접수는 1,054 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 차 사망자 226 명보다 많은 236 명이다.
- 2015 년 4 월까지 진행된 1-2 차 조사에 사망자 146²명을 포함한 530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 년도에 접수된 3 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 명을 포함한 752 명이다. 2016 년 5 월말까지 접수된 4 차 접수자 1,054 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 명이다. 사망자는 462 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 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 명당 2 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 월부터 4 월 25 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¹ 6 월 11 일 의원실에 전달된 데이터는 1,057 명에 사망 238 명이었는데, 최종 제출된 자료는 1,054 명에 사망 236 명으로 수정되었다.

² 1-2 차 조사발표 이후 6 명이 추가로 사망해 146 명이 되었다. 정부는 판정등급 4 단계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인 건강모니터링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도 파악되지 않는다.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 건(사망 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 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슴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 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슴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 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 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 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 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 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 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슴기살균제 피해 대전·충남·세종시 현황

- 1 2016 년 5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충남·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 명, 생존환자는 140 명이다. 사망률은 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지역	분류	1-2차 조사 (2011~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5.31)	계
대전, 충남, 세종	사망	23	2	15	40
	생존환자	35	43	62	140
	소계	58	45	7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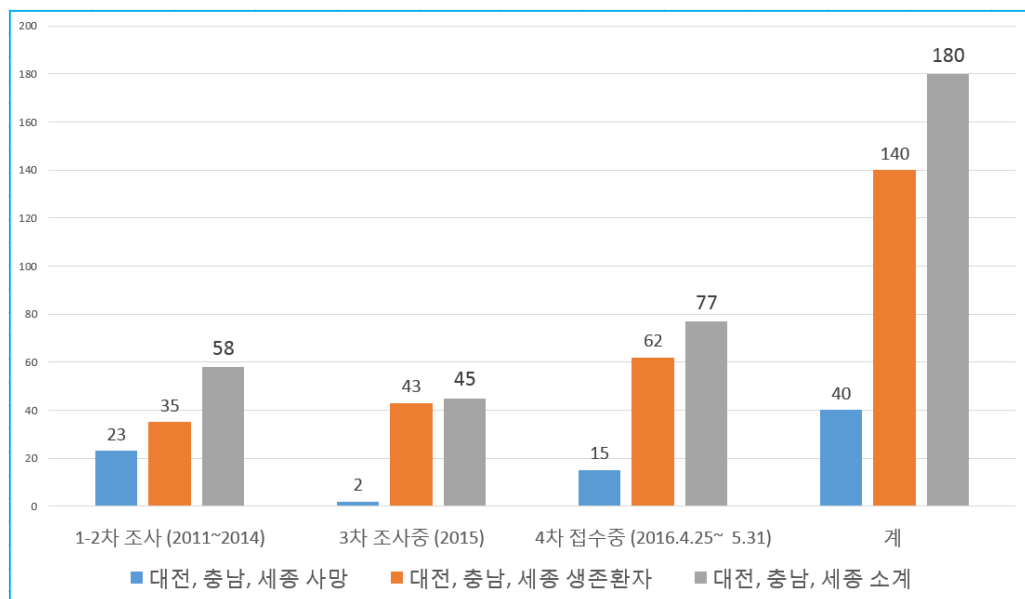
<표, 대전·충남·세종시 지역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23 명, 생존환자 35 명 등 58 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2 명, 생존환자 43 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 월 25 일부터 5 월 31 일까지의 4 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 명, 생존환자 62 명 등 77 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 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 11), 충청남도 29(사망 3), 세종시 6(사망 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 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 년 1 년동안의 신고 수보다 2 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충남·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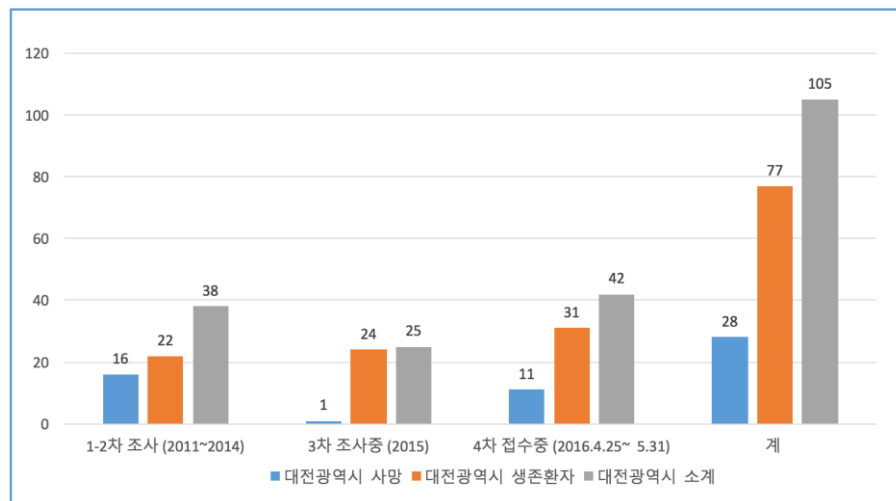
<그림, 대전·충남·세종지역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지역	분류	1-2차 조사 (2011~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5.31)	계
대전광역시	사망	16	1	11	28
	생존환자	22	24	31	77
	소계	38	25	42	105
충청남도	사망	7	1	3	11
	생존환자	11	16	26	53
	소계	18	17	29	64
세종시	사망	0	0	1	1
	생존환자	2	3	5	10
	소계	2	3	6	11
합계	사망	23	2	15	40
	생존환자	35	43	62	140
	합계	58	45	77	180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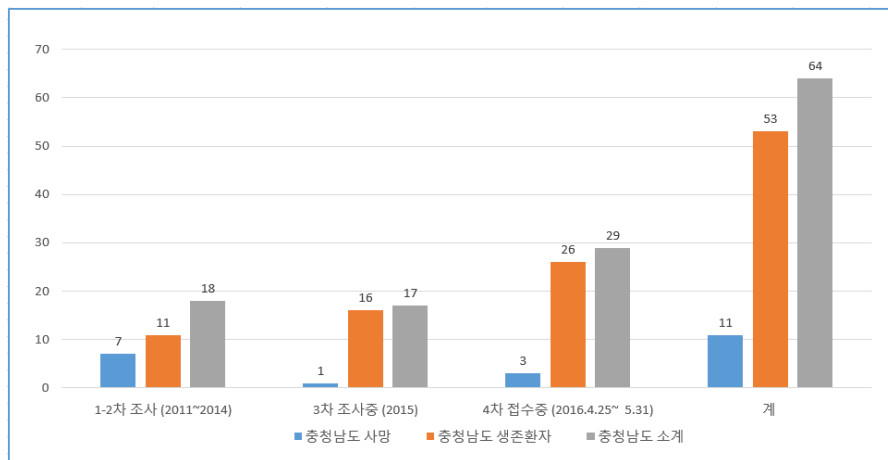
- ① 2016 년 5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 명, 생존환자는 77 명이다. 사망률은 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 ②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명, 생존환 22 명 등 38 명이 조사되었다.
-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1 명, 생존환자 24 명이 신고되었다.
- ④ 4 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 명, 생존환자 31 명 등 42 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 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 2, 동구 11(사망 3), 서구 13(사망 5), 유성구 11(사망 2), 중구 5(사망 1) 등이다.



<그림, 대전광역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2) 충청남도 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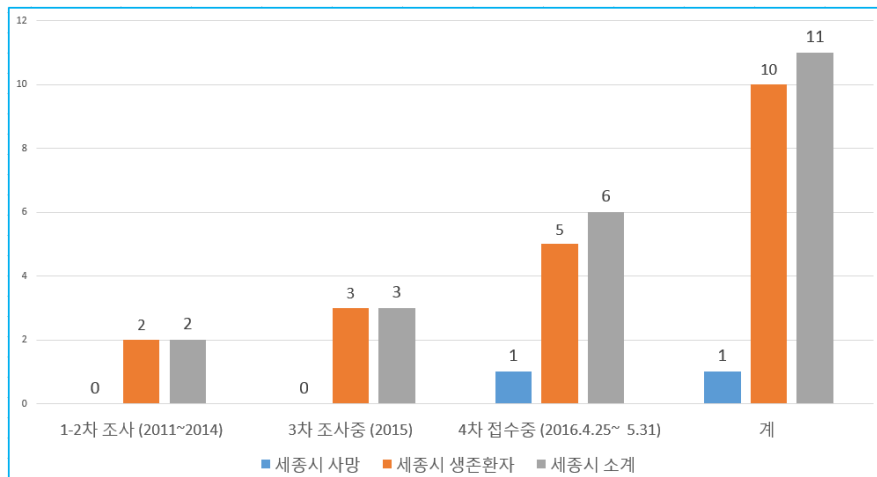
- ① 2016 년 5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 명, 생존환자는 53 명이다. 사망률은 17%이다
- ② 1-2 차 조사에서 사망 7 명, 생존환자 11 명 등 18 명이 조사되었다.
-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1 명, 생존환자 16 명이 신고되었다.
- ④ 4 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 명, 생존환자 26 명 등 29 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 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 2, 논산시 1, 당진시 2(사망 1), 서산시 2, 서천군 1, 아산시 10(사망 1), 예산군 1, 청양군 1, 홍성군 1, 천안시 동남구 3(사망 1), 천안시 서북구 5 등이다.



<그림, 충청남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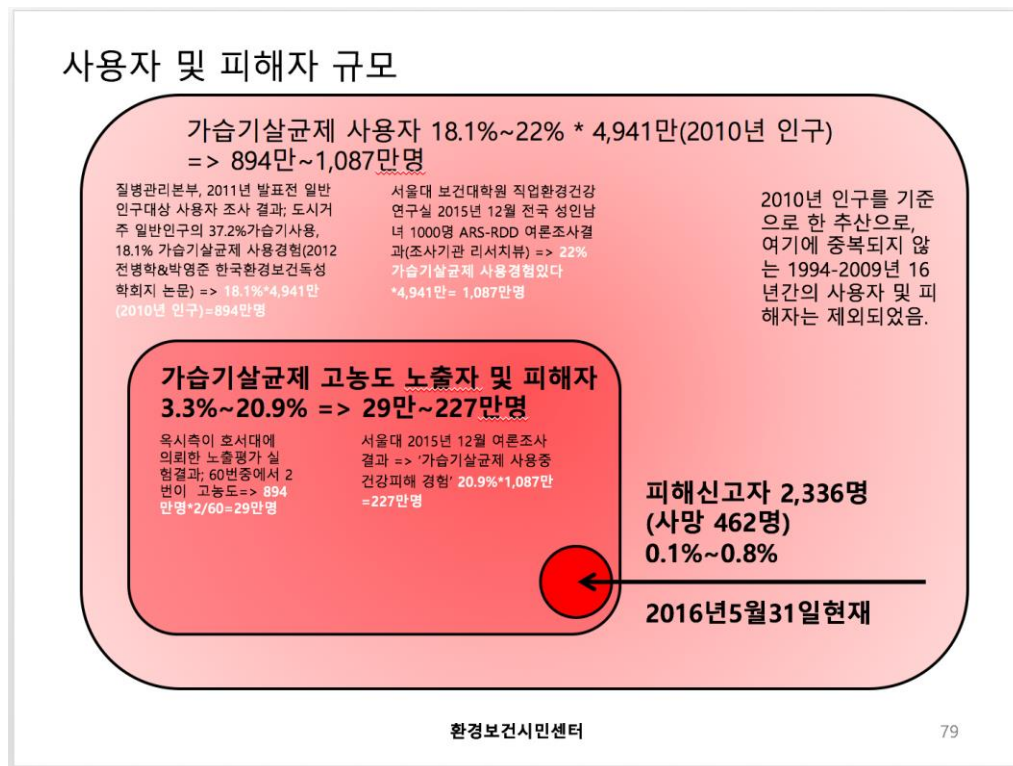
3) 세종시 피해현황

- ① 2016 년 5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 명, 생존환자는 10 명이다. 사망률은 9%이다.
- ② 1-2 차 조사에서 생존환자 2 명이 조사되었다.
-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생존환자 3 명이 신고되었다.
- ④ 4 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 명, 생존환자 5 명 등 6 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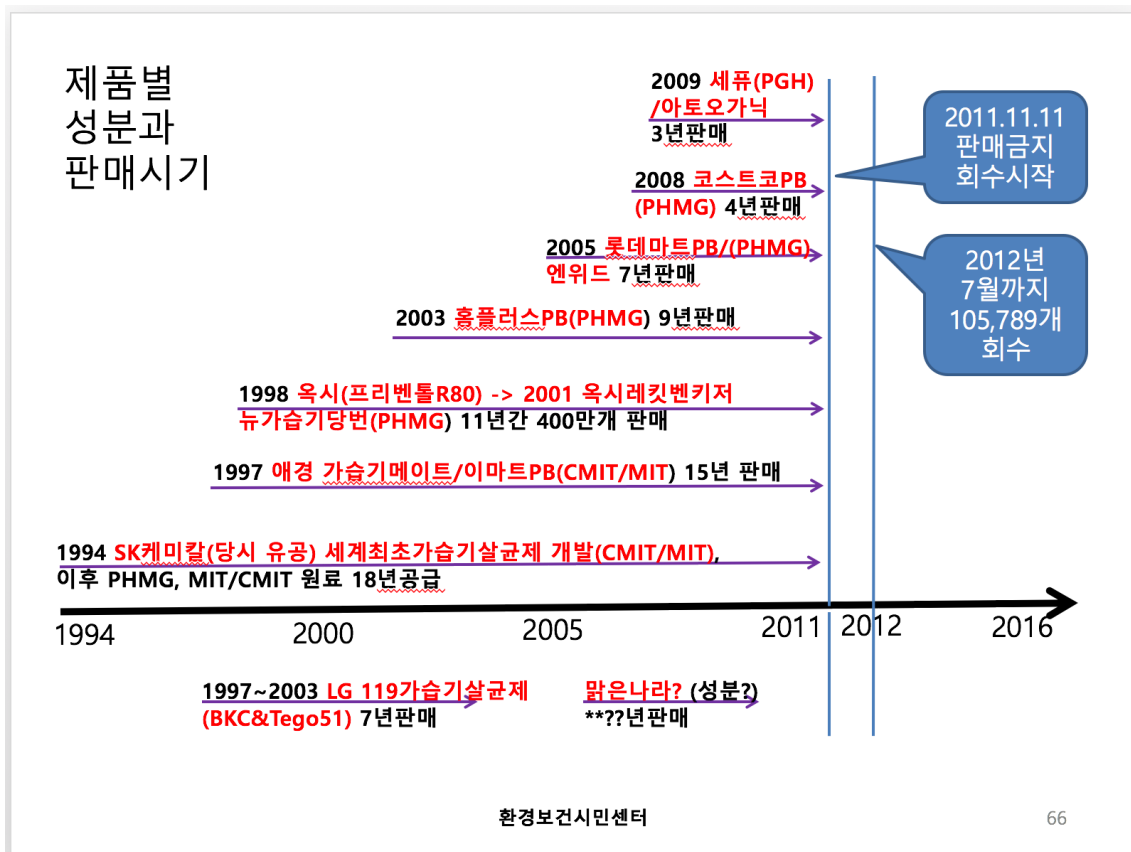
-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 만~227 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 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 만명에서 220 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 년전~22 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 년이었고 이후 2-3 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 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 년전, 멀게는 22 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 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 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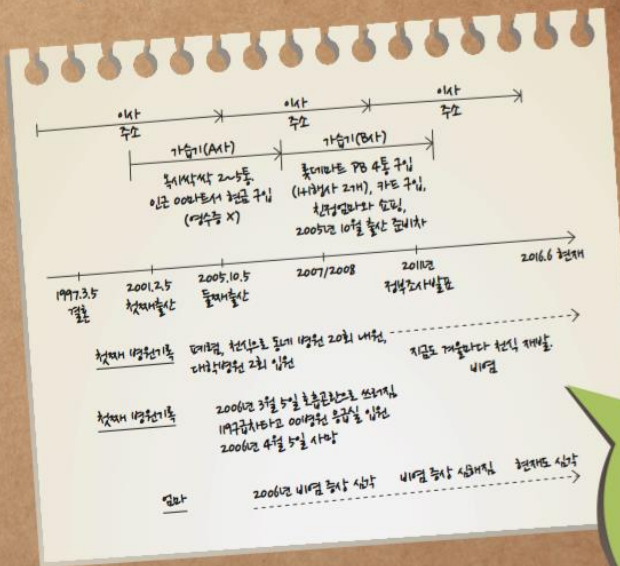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옥시박박 가습기당번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PB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LG마트 PB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PB 가습기 청정제	세류 가습기살균제	엔위드(발포정)
			
코스트코 PB 가습기 클린업	다이소 PB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	아트세이프 가습기 항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세정
			

-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나도 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하세요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런데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전화 **02-741-2700**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환경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relidf@keiti.re.kr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제 2 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시요

지난 4 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 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 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 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 케미칼은 1994 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 2 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 년 6 월 29 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옥시의 완전 퇴출
- ▶ 가해 기업들(SK케미컬 등)과 정부 책임자 처벌
- ▶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이름	서명	이메일 또는 연락처	한마디
1				
2				
3				
4				
5				
6				
7				
8				
9				
10				

※ 서명 용지는 검찰의 가해기업의 수사 촉구 국회의 입법 독려 용도로 활용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